

G1005 유럽주식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유럽주식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키움투자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
| 펀드명칭 | 유럽주식재간접형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X464 | | |
| 펀드의 종류 |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 최초설정일 | 2017.09.11 |
| 운용기간 | 2021.04.01 ~ 2021.06.30 | 존속기간 |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
| 자산운용회사 | ABL생명보험 | 펀드재산보관회사 | 국민은행 |
| 판매회사 | ABL생명보험 | 일반사무관리회사 | 하나펀드서비스 |
| 상품의 특징 | 투자 목적은 유럽 지역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 |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 펀드명칭 | 항목 | 전기말 | 당기말 | 증감률 |
|----------|---------------------|----------|----------|-------|
| 유럽주식재간접형 | 자산 총액 (A) | 2,558 | 3,062 | 19.70 |
| | 부채 총액 (B) | 1 | 1 | 28.35 |
| | 순자산총액 (C=A-B) | 2,557 | 3,060 | 19.69 |
| |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 2,454 | 2,780 | 13.30 |
| | 기준가격 (E=C/D × 1000) | 1,042.07 | 1,100.86 | 5.64 |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당기간 동펀드는 5.64%의 수익률을 시현하였으며 BM대비 34bp 언더퍼폼 하였습니다. 당기 원유로는 1.04% 상승하였습니다. 1분기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 글로벌 국제 금리 급등 완화, 경기지표 개선, 경제 재개 기대감 상승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유럽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면서 6월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업 PMI는 각각 63.1, 58.0을 기록하는 등 경기는 확장 국면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주의 비중이 적은 유럽 증시는 분기 말 상승폭을 축소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3분기 유럽 증시는 분기 초 회복할 수 있으나 점차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성장주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어, 소재, 금융 등 경기민감주의 주가가 다소 정체되며 유럽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채택하였으며, 유럽 부흥기금 집행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7월말 이후 바이러스 확산 영향이 경감되면서 재차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성장주 우세 분위기에 따른 IT, 경기재개 및 소비확대에 따른 소비재 업종이 선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 최근 3개월 | 최근 6개월 | 최근 9개월 | 최근 12개월 |
|--------------|---------|---------|---------|---------|
| 유럽주식재간접형 | 5.64 | 13.05 | 22.46 | 24.23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 (-0.34) | (-1.12) | (-4.57) | (-4.11) |
| 비교지수(벤치마크) | 5.98 | 14.17 | 27.03 | 28.34 |

※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_Daily_TR_Net_EMU_Local(T-1) 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
| 유럽주식재간접형 | 24.23 | 18.95 | 13.68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 (-4.11) | (-4.29) | (-12.09) | (-) |
| 비교지수(벤치마크) | 28.34 | 23.24 | 25.77 | - |

※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_Daily_TR_Net_EMU_Local(T-1) 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손익 합계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전기 | 0 | 0 | 0 | 138 | 14 | 0 | 0 | 0 | 0 | 0 | 2 | 154 |
| 당기 | 0 | 0 | 0 | 178 | -43 | 0 | 0 | 0 | 0 | 0 | 21 | 1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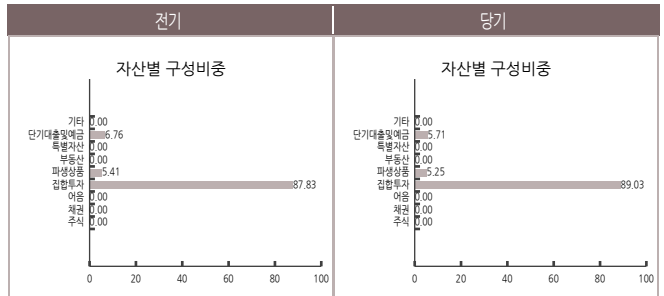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EUR (1340.57) | 0 | 0 | 0 | 2,726 | 0 | 0 | 0 | 0 | 0 | 0 | 0 | 2,726 |
| (0.00) | (0.00) | (0.00) | (89.03)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89.03) |
| KRW (1.00) | 0 | 0 | 0 | 0 | 161 | 0 | 0 | 0 | 0 | 175 | 0 | 336 |
| (0.00) | (0.00) | (0.00) | (0.00) | (0.00) | (5.25) | (0.00) | (0.00) | (0.00) | (0.00) | (5.71) | (0.00) | (10.97) |
| 합계 | 0 | 0 | 0 | 2,726 | 161 | 0 | 0 | 0 | 0 | 175 | 0 | 3,0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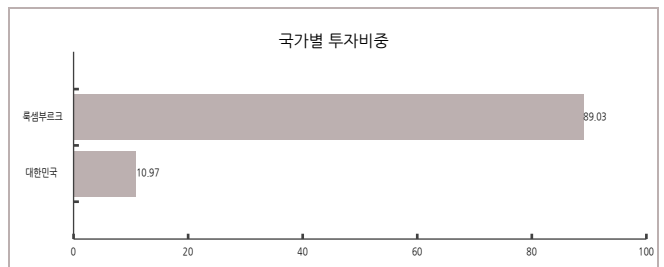
※ (): 구성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 | 국가명 | 비중 | 국가명 | 비중 |
|---|-------|-------|-----|----|
| 1 | 룩셈부르크 | 89.03 | 6 | |
| 2 | 대한민국 | 10.97 | 7 | |
| 3 | | | 8 | |
| 4 | | | 9 | |
| 5 | | | 10 | |



▶ 한해지에 관한 사항

| | |
|---------------|---|
| 환헤지란? |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
|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분 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 기준일(21.06.30) 현재 환헤지 비율 | 환헤지 비용 (21.04.01 ~ 21.06.30) | 환헤지로 인한 손익 (21.04.01 ~ 21.06.30) |
|--------------------|-------------------------|---|----------------------------------|
| - | 88.1 |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통화선물

(단위: 계약, 백만원)

| 종목 | 매수/매도 | 계약수 | 미결제약정금액 | 비고 |
|------------|-------|-----|---------|----|
| 유로 F202107 | 매도 | 179 | 2,402 |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 종목명 | 비중 | 구분 | 종목명 | 비중 |
|----|--------|-------------------------|-------|-----|----|
| 1 | 집합투자증권 | SCHRODERINTLEUROEQTCACC | 89.03 | 6 | |
| 2 | 단기상품 | 은대(국민은행) | 5.71 | 7 | |
| 3 | 단기상품 | 증거금(NH선물) | 4.96 | 8 | |
| 4 | 파생상품 | 유로 F202107 | 0.29 | 9 | |
| 5 | | | | 10 |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 종목명 | 종류 | 설정원본 | 순자산금액 | 발행국가 | 통화 | 비중 |
|-------------------------|------|-------|-------|-------|-----|-------|
| SCHRODERINTLEUROEQTCACC | 수익증권 | 2,544 | 2,726 | 룩셈부르크 | EUR | 89.03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 종류 | 금융기관 | 취득일자 | 금액 | 금리 | 만기일 | 발행국가 | 통화 |
|-----|-----------|------------|-----|------|-----|------|-----|
| 예금 | 국민은행 | 2017-09-11 | 175 | 0.23 | - | 대한민국 | KRW |
| 증거금 | 증거금(NH선물) | - | 152 | 0.00 | - | 대한민국 | KRW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 성명 | 직위 | 나이 | 운용중인 펀드 현황 |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운용규모 | | 협회등록번호 |
|-----|-----|----|------------|-----------|------------------------|------|------------|
| | |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
| 최미영 | 부사장 | 42 | 81 | 2,633,760 | - | - | 2119000125 |
| 이대석 | 차장 | 39 | 81 | 2,633,760 | - | - | 2120001220 |
| 김태현 | 과장 | 38 | 81 | 2,633,760 | - | - | 2119000109 |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c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기간 | 운용전문인력 |
|-----------------|--------|
| 2019.01.25 ~ 현재 | 최미영 |
| 2020.09.17 ~ 현재 | 이대석 |
| 2019.01.24 ~ 현재 | 김태현 |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전기 | | 당기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자산운용사 | 0 | 0.01 | 0 | 0.01 | |
| 판매회사 | 3 | 0.11 | 4 | 0.11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0 | 0 | 0.00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보수합계 | 3 | 0.13 | 4 | 0.13 | |
| 기타비용 | 1 | 0.03 | 0 | 0.01 | |
| 매매 증거수수료 | 단순매매 증거수수료 | 0 | 0.02 | 1 | 0.02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0 | 0 | 0.00 |
| | 합계 | 0 | 0.02 | 1 | 0.02 |
| 증권거래세 | 0 | 0.00 | 0 | 0.00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증거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 | 총보수·비용비율(A) | 매매·증거수수료 비율(B) | 합계(A+B) |
|----|-------------|----------------|---------|
| 전기 | 0.6268 | 0.0765 | 0.7033 |
| 당기 | 0.6065 | 0.08 | 0.6865 |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증거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증거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증거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유럽주식재간접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